

기업윤리 브리프스

1

국민권익위원회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전문가
칼럼

더 많은 이익(BOTTOM LINE)이 아닌 더 의미(UPPER LINE) 있는 회사가 되어라!

좁고 얇은 마케팅은 고객의 지갑을 열고고만 하고 고객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이다. 넓고 깊은 마케팅은 반대로 고객의 지갑은 닫고 고객의 마음을 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귀사는 어느 쪽인가?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 기업들은 지나치게 이익창출에 몰입되어 지갑에만 관심이 있다. What's the bottom line? 이라고 묻는 사람도 너무 많다. Bottom line이란 기업의 손익계산서의 맨 아랫줄을 말한다. 맨 아랫줄은 세금,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순수 이익을 말한다.

The bottom line의 상대적인 용어는 Top line이다. 손익계산서의 맨 윗줄(top line)에 표기하는 액수는 '총수입, 총매출'을 말한다. 그런데 장수하는 기업들은 Top line 위에 있는 Upper line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Upper line이란 무엇일까?

손익계산서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업 최고의 지향점이다. 마케팅의 그루 필립 코틀러는 이를 마케팅 3.0이라 불렀다. 영혼이 있는 회사가 최고의 마케팅 기업이라는 의미이다. 피터 드러커는 이를 미션(Mission)이라 불렀다. 드러커 경영의 출발은 기업존재 이유인 미션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면, 고객이 몰려오고, 고객의 지나간 흔적이 이익이 되는 것이다. 미션과 가치경영을 강조하는 모 기업의 경우 미션은 '모든 사람이 미래의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 기업은 이 미션이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회사가 사회에서 사랑받는 이유이고 사회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

정리해보면, 기업의 유형은 3가지로 나누어진다. 마케팅 1.0 회사는 Bottom line, 즉 이익을 중시하는 주주중심의 기업이며, 마케팅 2.0회장은 Top Line, 즉 매출액을 높이는 고객지향적 기업이다. 마케팅 3.0회장은 Super line, 즉 사회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철학이 있는 기업이다.

기업은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가?

기업에서 bottom line(순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자원을 혹사하여 오늘의 이익 만들기에 급급하여 내일의 조직능력구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직원과 함께 변명해야 회사도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철학을 가진 마케팅 3.0회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집 짜장면의 철가방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배달부는 부자가 될 징조이다. 반대로 몇 푼 벌려고 내가 이 짓하고 있나 생각되면 철가방은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배고픈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짜장면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철학이 없으면 회사경영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돈벌이의 머슴이 될 수밖에 없어진다.

철학은 원칙을 편안하게 만든다. 철학의 크기가 윤리경영의 크기이다. 철학이 없는 회사에서 윤리경영의 원칙은 종업원을 매뉴얼의 머슴으로 만든다. 그러나 철학이 있는 회사는 종업원을 원칙과 매뉴얼의 주인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싶은 회사일수록 이제 더 많은 이익에서 더 의미 있는 회사로의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은 일시적 대박싸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윤리경영은 종업원을 주인으로 만들어가는 철학이 되어야 한다. 기업윤리, 2가지 길이 있다. Bottom Line의 도구가 되는 길과 Upper Line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철학이 있으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기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중심 기업가 정신으로 윤리경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병신년이 되기를 바란다.



김기찬

(기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중소기업학회장)



동향 & 소식

:: 국 내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윤리경영 비전 선포식 가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전국 연합회 임원 700여명이 모여 '2015년도 윤리경영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국 77만 5,000여 명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밝히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철저한 교육과 자율 정화 운동을 통해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운영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모든 민간 보육교사들에 대한 8시간 근무제 확립 및 처우개선을 제시했다.



출처: <http://www.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511241126284400008418&categorycode=0010>

단순한 기부는 No,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개성 있는 사회공헌

착한기업 열풍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불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티스트가 소속된 기업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일반기업의 CSR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또 단순 기부 형식을 벗어나 특색 있는 사회공헌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love fnc스쿨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전 세계 아동 및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설립을 시작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직원, 팬들이 함께 참여하여 쌀 기부, 밥 차기, 심장병 환자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YG with라는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51202231101434>

대한건설협회, '2015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5년도 건설업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업체로 대상에는 동서건설이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삼양건설, 대한, 남경종합건설, 신화건설이 각각 선정됐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윤리경영 모범 사례가 건설산업 전반에 확산돼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리경영대상은 건설업 분야에서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체를 발굴, 그 사례를 확산하고 산업내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하고 권익위, 국토부, 공정위 등의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60500>

:: 해 외

19개국 기업인·정부 '클린 에너지 펀드' 만든다

19개국 글로벌 기업의 기업인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 힘을 합쳐 친환경에너지 기술에 5년간 200억 달러(23조 1,500억원)를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19개국이 참여하고 민간에서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CEO, 맥 휘트먼 휴렛 팩커드 CEO, 마윈 알리바바 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기금은 풍력 및 태양열 발전과 첨단 전력저장 기술 등 청정에너지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511/e20151130172022143180.htm>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영국 대중들의 인식 설문 조사

IBE 기업윤리 연구소에서는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영국 대중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소가 지난 12년간의 영국 대중들의 기업윤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 39%에 달하는 영국 대중들이 '최근의 비즈니스는 여전히 비윤리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 기업들의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개선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세금 회피나 경영상의 이익, 노동자 문제, 고용인들의 내부고발과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출처: http://www.ibe.org.uk/userassets/briefings/ibe_%20attitudes_survey_2015.pdf

강력한 반부패 정책 중국, 2015년 한 해의 한자로 '염(廉)자 선정

최근 중국 정부의 청렴한 기업 문화 실현 정책을 반영하여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언어자원조사연구센터 등이 2015년 한 해를 나타내는 한자로 청렴할 염(廉)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염'자가 선정된 것은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수년째 추진 중인 강력한 부패척결 캠페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주최 측은 "관료의 청렴은 서민들의 가장 큰 기대이고 관료들이 청렴해지면 정계의 풍토 전반이 맑아질 것이며 유덕한 정부가 공덕 있는 사회를 이끄는 양성순환도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22_0010492538&cID=10101&pID=10100



국내외 행사

2016년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2016년 9월 G20 정상회담(중국 항저우) 선언문에 포함될 반부패 관련 부문 논의와 2017~2018년 반부패 행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

- 일시: 2016년 1월 26일~27일
- 장소: 중국 베이징



World CSR Congress

CSR 지도자, 전문가, 최고 경영자, 지속가능성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계 CSR 의회' 조직을 축하하고, 국제·지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CSR 사례를 논의하고 메시지를 확산할 예정

- 주최: World CSR Day
- 일시: 2016년 2월 17일
- 장소: 인도 뭍바이



글로벌 리포트

북유럽 국가의 반부패 윤리경영 제도와 정책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 스웨덴 · 핀란드는 복지국가의 명성 뿐 아니라 투명성과 윤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부패지수에서 노르웨이 · 스웨덴 · 핀란드는 174개국 중에서 각각 5위(82점), 4위(87점), 3위(89점)에 랭크되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 · 스웨덴 · 핀란드 반부패 윤리경영 현황

북유럽의 3개국은 국가 전반의 윤리 · 청렴 수준을 알 수 있는 부패 지수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WEF)의 기업 윤리경영 실천도 조사에서도 상위권(142개국 중 스웨덴 3위, 핀란드 5위, 노르웨이 6위)을 기록하였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1년 청렴시스템평가에서도 스웨덴은 정치청렴도와 경제청렴도에서 100점을 기록하였으며, 노르웨이와 핀란드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유럽 국가의 기업들이 성공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윤리와 청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고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 · 스웨덴 · 핀란드 정부의 반부패 정책

노르웨이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1970년에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고 모든 프로세스를 기록보관법에 의거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lovdata.no'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스웨덴은 부패감시기관을 두고 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Capacity',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Governance', 청렴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Integrity Mechanism'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핀란드는 'The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를 제정하여 정치적인 활동과 행정적인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제도

PIDA(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노르웨이): 기업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적용됨

관피아 금지법(노르웨이): 2005년 공적 분야(Public Sector)에서 정치인(장관, 차관, 정치 고문 포함)을 대상으로 민간영역으로 이직 시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

Anti-Bribery legislation(스웨덴): 2012년 뇌물 금지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발효하여 뇌물 공여 및 수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제를 강화하였음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

핀란드의 'FIBS'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기관으로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이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CSR Europ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CSR 360 Global Partner Network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노르웨이의 'CSR Norge'는 CSR Europe 2020을 기업이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스웨덴의 'GLOBAL FORUM'은 기업이 직면한 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인프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CEO들이 협력하여 만든 단체로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CSR Action Plan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2004년 UNDP(유엔 개발계획)의 주도하에 'Nordic Representation Office'(NRO)를 설립하고 북유럽 국가 사이의 협력을 맺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또한 세 나라 모두 CSR Europe*의 'CSR 2020 Summit'을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적 혁신과 투명한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 CSR Europe: 실업, 기후 변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유럽 전역의 40개 이상의 국가 파트너 조직과 10,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

청렴
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는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12월 1일부터 9일까지를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국제행사, 지역별 청렴캠페인, 시민문화마당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UN은 지난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의 UN 반부패 협약 조인식을 기념하여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주간 동안 201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와 함께, 3~4일 한-인니 반부패 정책협의회 및 공동 반부패 워크숍 개최, 7일 고위직 외부강의 및 경조사 관련 수범사례 전파, 9일 공공기관 청렴음부즈만 협의회 출범식 개최 등의 행사를 운영했으며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시민문화마당,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투명사회 실천네트워크 지역별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반부패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 행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반부패 주간 행사



윤리경영 스터디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5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를 통틀어 총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청렴도 측정은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금년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모두 24만 5천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설문조사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게 되며 2015년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 측정지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개선 내용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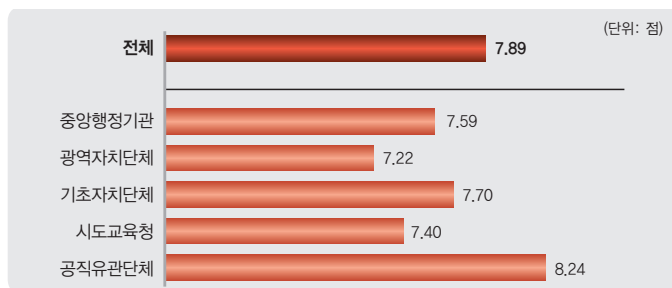
종합청렴도 측정 방법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평가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신뢰도 저해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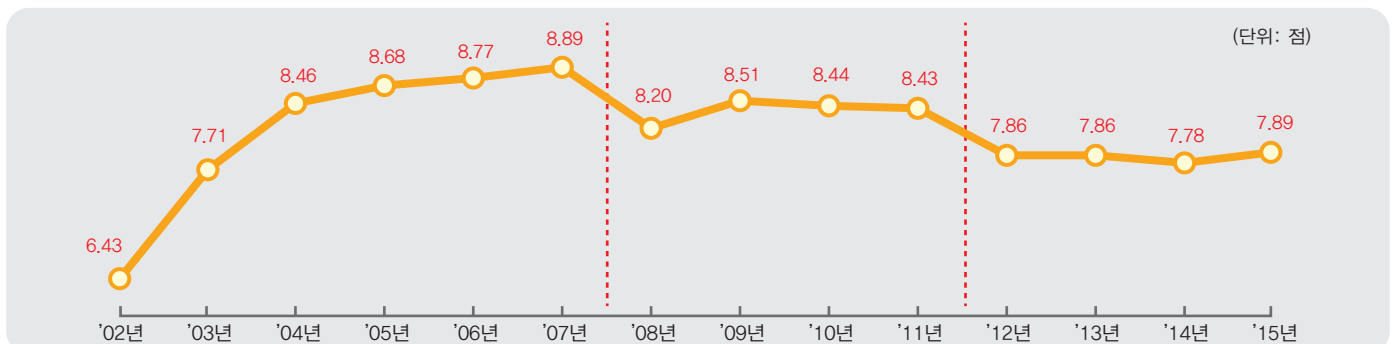
2015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체 대상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9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 0.11점 상승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감점 대상 부패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청렴도 점수 추이('02~'15)



※ '08년,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4점)가 가장 높은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7.22점)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수행업무가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현장 중심 업무가 많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청렴도 (+) 지표

- **외부청렴도**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되며 8.02점으로 전년(7.95점) 대비 0.07점 상승
-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되며 8.00점으로 전년(7.82점) 대비 0.18점 상승
- **정책고객평가** :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7.08점으로 나타나 전년(6.86점) 대비 0.22점 상승

종합청렴도 (-) 지표

-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공직자 징계 지수와 부패사건지수로 구성되며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137개 기관 484건으로 전년(161개 기관 553건) 대비 감소하였으며, 부패사건지수 적용 대상 부패사건 역시 61개 기관 95건으로 전년(79개 기관 128건) 대비 감소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 측정대상자 명부의 임의변경·오기 등으로 인한 감점 기관이 28개 기관, 설문결과의 호의적 평가 유도에 따른 감점 기관이 406개 기관으로 집계됨.

종합 결과

국민이 참여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부패에 대한 경험률은 1.7%로 전년과 유사하고, 직접적인 금품 등의 제공 경험률은 감소했으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등의 부패인식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청렴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독자의 목소리 2015년을 돌아보며



지난 한 해 동안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님들에게 지난 해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중요했던 사건과 이슈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 사건은?

“땅콩회항, 우유업계 납품비리, 화장품 업체 판매원 빼내기, 열정페이 논란 등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갑을 논란이 생깁니다. SNS와 인터넷의 발달은 부당한 갑질을 알리고 공론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제는 거대 조직이나 권력으로도 쉽사리 이와 같은 횡포를 무마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개인이나 기업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일련의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업체 H차장

“윤리경영을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 기업의 '20대 명예퇴직' 사건이 생깁니다. 회사의 어려움에 따라 인력조정을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드러난 회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들은 (정확한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더라도) 구설수에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망하는 기업이 가장 비윤리적인 기업이라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인력조정 과정에서 직원과의 협상태도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서비스업체 L과장

“독일 폭스바겐社 스캔들이 비윤리적 의사결정이 기업 존립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H공기업 P차장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인해 주가 폭락, 임원 사퇴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업이 고객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사태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부족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 내부고발자를 배척하는 문화에서 발생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 사태를 보면서 '기업과 신뢰'라는 주제로 최고 경영진과 각 부문별 임원들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현 상황에 대한 점검과 윤리경영 의식 고취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체 K대리

귀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이슈(위기, 기회, 성과 등)와 2016년 계획은?

“신규 공장 건설 현장의 유독가스 누출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위기였습니다. 반면에 업계 최초로 시도된 '임금공유제'를 시행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업체 H차장

“금융업은 업의 특성상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개인의 일탈이나 조직적인 모의에 의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금전상의 손실 이외에 신뢰도 하락이라는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윤리경영이야말로 금융회사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서비스업체 L과장

“인권경영을 도입하고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의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한 것이 2015년 저희 회사의 큰 성과였습니다.”

H공기업 P차장

“2015년 윤리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기존의 제보 체계를 재수립하고, 제보자 보호제도를 강화한 것입니다. 제보 프로세스를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철저한 제보자 보호와 제보에 따른 보상체계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윤리경영시스템을 재정립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 외에 부족한 부분을 재점검하여 통합적인 윤리경영시스템을 재구축할 것이며, 윤리경영의 수준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제조업체 K대리



One Point Lesson

Q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란 무엇이며 교토의정서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COP(Conference of the Parties)21은 프랑스 파리(2015년 11월 30일~12월 12일)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말합니다.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회의로 일 년에 한번 모임을 가지며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가 참여한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의무화하는 파리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여 산업화 이후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각국은 '진전원칙'을 채택하여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 이행 여부는 2023년을 기점으로 5년 간격으로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것과 달리, 모든 나라가 감축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차이가 있으며,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과 아프리카 등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위기에 놓여있는 취약한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은 윤리

비윤리 연행



자료제공 : 롯데백화점

맞·취·보·세·요

부패방지 시책이나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며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종합 청렴도 측정'의 구성 요소 중 측정 시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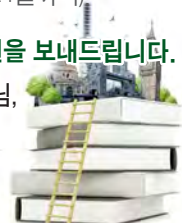
- 1) 외부청렴도 2) 내부청렴도
- 3) 정책고객 평가 4) 부패사건 발생현황

- 지난 호 정답 : 3번, CSV(Creating Shared Value)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웅 주무관(gukmin@korea.kr)
-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4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김하영님, 안태환님, 김남혁님, 권대균님, 하지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